

21세기 지리학과 삶의 질

홍 시 환*

Geography and Quality of Life in the 21st Century

Hong Si-Hwan*

1. 서론

21세기... 이제 바로 눈앞에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지리학의 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

사실상 인간문명시대에 들어온 이후 우리 인간의 지표면과의 지인상관적 관계는 그 시대에 따라 계속적인 변모를 갖추어 왔다고 하겠으며 지표공간은 물론 타 천체와의 체계적 유대성도 점차 알게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라 하겠다.

특히 첨단적인 정보과학의 기술로 신비에 싸였던 이 지구의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는 이때에 새로 맞이하는 21세기에는 지금까지보다 새로운 각오와 보다 첨예한 관점에서 지리학의 질적 향상과 슬기로운 지리지식의 이용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2. 역사적으로 본 지리의 삶과 질

우리 조상들은 지구표면에 정주하게 되면서 되도록 생산성 있는 환경을 선호하였다. 그 결과 특히 기후환경이 좋은 델타지역에서 고대문명이 발생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들은 정주하고 있는 생활터전에서 점차 필요에 따라 지역공간을 넓혀 갔으며 차차 시야는 넓어지고 행동반경도 넓어져 마침내 고대사회에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것이다. 이른바 지중해 문명시대이다.

즉 살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서 인간의 지표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생활터전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우주 세계에까지도 관심을 지니게 되는 지리사상의 질적 향상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지중해의 울타리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중해 주변의 내륙지역은 물론 주변의 연안 지역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웃지역과의 왕래는 점차 그 지역공간이 넓혀지게 되었고 각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환경차이에서 오는 생활용품, 풍경, 풍물들에 대한 호기심들은 마침내 지리발견시대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새로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풍물의 등장은 삶의 질의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으며 따라서 지리사상도 점차 좁은 지역공간에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자연과 인간의 상관성과 지역과 지역간의 비교분석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즉 지표공간에서의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절충으로 인한 지리적 사물들의 분포와 특성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 마침내 지각의 내부, 타 천체와의 상관성과 이용성에까지도 관심을 모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21세기의 지리의 삶과 질

요컨대 우리 지구가족들의 생활무대는 지금까

* 한국동굴학회 명예회장, 안산공과대학 이사장

** 홍시환 교수께서는 1999년 12월 30일에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월 3일의 발표문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게재합니다.

지의 지표면에서의 지역적 구속을 벗어나 보다 넓은 지표공간은 물론이고 다른 천체와의 삶의 유대성을 찾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야말로 전 지구가족들이 유대를 강화하여 이른바 “하나의 세계”를 모색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모두 인지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지리정보문화의 발전에서 왔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표공간의 자연환경은 그 나라마다의 절대적 위치환경 때문에 각기 다르며 이에 따라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지역민속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아무리 “하나의 세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민속문화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들 지역성 차이에서 오는 지역문화의 유지보존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개성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표공간의 특수환경 때문에 이룩되어 온 오랜 지역의 전통문화를 길이 보존할 것은 물론 이들 지역민속문화의 보다 더한 특성화에 유의하여야 하겠다고 본다.

21세기야말로 세계화, 국제화, 지구가족화의 미명아래 많은 지역토착문화가 파괴 변질되어가고 있음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4. 결론: 21세기의 지리학의 사명

요컨대 20세기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표공간의 삼라만상은 물론 지리적 분포특성과 이들 지역에서의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상관성은 비교적 파악되어 왔다고 보겠다.

그러나 21세기의 앞날에 있어서의 이른바 “하나의 세계권” 속에서 각 지역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 나아가는 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즉 세계화에 따른 하나의 세계에서 되도록 이들 지역들의 지역성을 부가시켜 공존공영할 수 있는 문화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를테면 환태평양권, 동아시아권, 동북아시아권 등이 이의 예이다.

전세계의 인류가 하나의 공통된 생활문화에 의해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지리환경으로 인한 전통적인 특수한 지역민속문화의 유지보존에 유의하는 방향에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특히 지역의 전통문화는 바로 그 지역의 지리환경에 유관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국제간의 유대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